



지식혁명, 독서교육, 그리고 학교도서관¹⁾

이제환*

1. 이야기를 시작하며

짐짓 후회스럽다. 절박한 심정에 나서긴 했지만, 준비할 시간이 너무도 짧았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 연찬회'에 참석하여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불과 4일 전이었다. 2학기 들어 이미 시작된 학부와 대학원 입시 그리고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 등으로 인해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이라 도저히 짬을 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거절하기에는 사안이 너무도 절실했다. 무엇보다도 며칠 전 개인적으로 겪었던 안타까운 경험은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교장선생님들의 연찬회'에는 반드시 참석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

벌써 몇 년째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노력 중이다. 부산경남지역의 거점 국립 대학에 속해있으면서도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는 아직까지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설치인가를 받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할 서류 중에는 '교육실습병설학교 지정증명서'가 있었다. 최소한 두 학교의 협조가 필요했기에, 부산대학교의 이웃에 자리잡은某중학교와某고등학교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앞서 이야기한 안타까운 경험은某중학교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다. 그 날, "우리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이 필요 없고 당분간 설치할 계획도 없다"는 교장선생님의 단정적인 말씀에 나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다.

교육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확정된 것은 지난 8월초였다. 유명무실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여 붕괴하고 있는 우리의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모처럼 교육부가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마련했구나 싶었다. 학교도서관을 살려보고자 노력해 온 시민단체들과 교육관계자들 그리고 관련 학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모처럼 상식이 받아들여져서 국가정책으로 구현되는 순간이었다. 종합방안의 발표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당위성을 국가가 인정하고 그 첫 삽을 떴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는 매우 컸다.

내가某중학교를 방문한 것은 교육부의 '종합방안'이 발표된 지 달포쯤 지난 후의 일이었다. 솔직히 환대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으니 폭넓은 교감을 나눌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1) 이 글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 CEO 및 초중등학교장 연찬회>에서의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e-mail : jwleeh@hywon.pusan.ac.kr

있었다. 방문했던 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관심만 보이시면,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파견하여 그 학교의 학교도서관 구축과정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그 분이 내게 보여준 학교도서관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는 너무도 커다란 아픔이 되어 내게 돌아왔다. 가져간 신청서류에 간신히 학교장 직인을 받기는 했지만, 학교로 돌아오는 내 발걸음은 너무도 무거웠다. 그리고 그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의 끝자락을 붙잡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섰다.

2.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교육경험이 일천한 사람이 교육계의 선배들 앞에서 감히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정책이 어떻게, 학교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어떻게, 독서교육의 실태가 어떻게, 학교도서관의 현황이 어떻게, 향후 학교도서관의 발전방안이 어떻게 하는 등, 이미 식자들 사이에서는 상식이 되어버린 이야기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 너무도 훌륭한 많은 분들이 각종 세미나나 공청회를 통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대부분의 이야기를 이미 해주셨기 때문이다. 또한 알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이 분들이 제시한 각종 해결책을 다룬 문헌들을 누구나 쉽게 구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나는 일선 학교의 운영자들과 교육행정 실무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학교도서관이 정상화되려면 교육부의 정책도 중요하고 관련 법률이나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고 각종 발전방안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일선 학교 운영자들과 교육행정 실무자들의 인식전환과 실행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교육부의 종합방안이 마련되기 이전에도 그리고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뜻과 의지를 가진 선각자들이 운영하는 일선 학교에는 훌륭한 학교도서관이 설립되어 있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학교도서관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한 지식공간이요 문화공간으로 살아서 숨쉬고 있다.

이처럼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관건은 일선 학교운영자의 뜻과 의지에 달려 있다. 일선 학교의 운영자들이 무관심하다면 교육부가 애써 마련한 '종합방안'은 또 하나의 사문화된 정책에 그치고 만다. 그러함을 너무도 잘 알기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제넘게 전략을 제시하고 방안을 나열하기에 앞서, 교육계의 선배들에게 엎드려 부탁하고자 한다. 제발 학교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이해의 폭을 넓혀, 학교의 심장이어야 함에도 그 동안 맹장같이 버려져 있던 우리의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청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 집 꼬마 놈이 아직은 간장 종지만한 작은 그릇에 죽은 지식을 꾸역꾸역 부어 넣는 고역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지식을 마음껏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오늘 일선 학교운영자들과 교육행정 실무자들의 이러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조금은 이론적인 그러나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의 지식문화가 얼마나 천박하고 우리의 지식인프라가 얼마나 척박한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하며, 그 원인을 우리 근대화 정책의 단견성과 근대화 과정의 졸속성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이어, 이러한 지적 천박성과 지식인프라의 열악함을 극

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며, 이 와중에 체계적인 독서교육과 학교 도서관 활성화의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끝으로, 학교도서관을 우리 사회의 지적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경영철학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3. 우리 사회의 지식 수준 : 그 천박성의 실태

우리 사회에서 知識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한 사회의 지식 수준을 평가한다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량적 평가 못지 않게 정성적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량적 평가와는 달리 정성적 평가는 아무리 치밀하여도 객관성을 얻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의 지식 수준에 대한 정성적 평가보다는 지식인의 수나 지식자원의 양을 헤아리는 정량적 평가가 보편적으로 행하여져 왔다. 특히, 지식경제의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지식을 경제활동을 위한 자원의 개념에서 해석하고, 지식산업의 비중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지식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이 전세계적으로 폭넓게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한 사회의 지식 수준을 경제적 관점에서 정량적 방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지식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지식을 삶의 목적으로 보기보다는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흔히 나타난다. 그들에게서는 또한 지식과 정보의 차이를 무시하고 혼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개인의 지식화와 지식의 대중화를 위한 사회적 능력보다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를 위한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주력한다. 그리고 그러한 측정결과에 기초하여 A라는 사회가 지식사회의 초입에 들어섰다는니 혹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한다. '선진'사회의 진입에 목말라 하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와 선동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과도하게 집착해 왔다. 그 결과로 '지식기반사회' 혹은 '지식강국'은 우리의 국정 목표가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지식기반사회의 중요성을 그토록 부르짖으면서도 우리 사회에는 지식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고 참 지식의 가치를 홀대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서재에 파묻혀 학문연구에 평생을 보낸 학자보다는 짜장면을 신속히 배달하는 방법을 찾아낸 중국집 주인을 '신 지식인'으로 떠받들고 있다. 안경너머로 지식의 중후함과 삶의 지혜가 배어나는 老학자의 강연보다 30일이면 영어를 정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젊은 영어강사의 강좌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 나라의 모든 부모가 목숨걸고 매달려있는 자식의 교육문제는 또한 어떠한가? 지식교육에 대한 관심에 있어 '세계적 수준'의 열정을 보이면서도, 막상 살아있는 지식의 습득보다는 죽은 지식의 주입을 강요하는 어리석은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퍼져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투자효과가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교양이나 전공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학습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어리석은 행위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학교교육은 목표와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공교육의 붕괴니 교육이민의 확산이니 하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우리의 초중등교육의 목표가 '그릇만들기'보다는 '그릇채우기'로

전략해 버린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부모들의 욕심은 한결 같아서 작은 종지에 불과한 자식의 머리에 죽은 지식을 꾸역꾸역 쏟아 붓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다 보니 본래 중간 그릇은 될 자질을 갖추고 태어난 아이들도 잘아지고 졸아들어 간장 종지로 전략하고 만다. 그 종지에 죽은 지식들이 넘쳐흘러 보기에 도민망하건만, 좋은 대학과 장미빛 미래를 강요하며 아이들을 잡는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이전의 강제적인 학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이때부터 학업은 뒷전이고 성장기에 즐길 수 없었던 놀이의 즐거움으로 빠져든다.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한 놈이건 지방의 삼류대학에 진학한 놈이건 우리 아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적당한 놀이가 필요한 시기에는 죽은 지식을 강제적으로 채워 넣느라고 정신없고, 고급 지식이 필요한 시기에는 놀이에 빠져 세월을 낚는다. 늦게나마 그릇키우기에 나선 모범(?) 학생들도 간혹 눈에 띈지만, 새삼스레 고기잡는 방법을 배우느라 학습효과가 떨어진다. 그래도 이런 학생들은 바라보는 것은 차라리 즐거움이다. 보다 큰 문제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고학년으로 진급하면서 죽은 지식과의 새로운 전쟁에 빠져드는데 있다. 취업 준비를 한답시고, 교양과 전공 지식에는 관심도 없다. 영어 책에 파묻혀 만나질, 자격증 준비한다고 만나질이다. 이들에게 도스토예프스키와 황석영은 차라리 사치이다.

주지하다시피, 지식은 깨달음의 원인이요 결과이다. 지식은 학습(혹은 배움)의 과정에서 얻어지며, 학습을 통해 축적된 지식은 삶의 양식이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외형적으로는 배움에 목말라 하면서도, 배움의 목적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 배움의 목적을 삶의 양식이 되는 知識의 축적으로 보지 않고, 출세를 위한 졸업장이나 자격증의 취득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혜보다는 요령이, 합리성보다는 직관력이, 이해력보다는 암기력이 성공을 위해 훨씬 중요한 자질이요 덕목이 되어 버렸다. 특히, 무한경쟁과 가시성을 중시하는 시장논리가 팽배해지고 ‘디지털’을 앞세운 기술결정론이 확산되면서, 폭넓은 지식의 축적보다는 반짝이는 정보의 습득이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처럼 되어 버렸다. 그리고 너도나도 지식보다는 정보의 바다에 뛰어들고 있다.²⁾ 우리의 철학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4. 천박한 지식문화의 원인 : 졸속적인 근대화 과정

나는 우리의 지식수준이 이처럼 천박하게 변질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가 지난 반세기동안 진행해온 ‘근대화’ 과정의 조급성과 졸속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근대화 과정은 개발중심적 파시즘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 저간에는 경제중심적이고 기술결정론적 가치관이 팽배해 있었다. 우리는 서구의 산업사회가 몇 세기에 걸쳐 이룩한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의 사회적 에너지를 집중하였다. 그 결과,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그토록 부러워하던 선진사회의 외형적 모습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포장을 걷고 조금만 안으로 들어서면 우리의 낙후된 시민의식과 행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근대화 과정 자체가 주체적이기보다는 종속적이고 토착적이기보다는 외래지향적이다

2) 그렇다고 당면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의 추구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참신한 아이디어 혹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에 늘어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죽은 지식보다는 살아있는 정보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과가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정보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가뜩이나 ‘개발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편협한 시각은 소위 ‘정보시대’를 사는 보통 사람들에게 ‘지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왜곡과 천대를 더욱 부추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니, 우리의 주체성은 길을 잃었고 전통적 가치체계는 무너져 버렸다. 우리의 것이 있던 자리들은 서구 것들로 급속히 대체되고 오직 '富'만이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천민자본주의의 나락에 빠져버렸다.

주지하다시피, 일제로부터 해방된 한국사회의 위정자들은 대부분 친일 지식층이었다.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기득권 유지에 골몰하던 그들에게 '대중의 지식화'는 참으로 위험한 암초였다. 이에 그들은 한편으로는 물질적 풍요를 미끼로 대중을 유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의 의식을 깨우치는 '참' 지식의 확산을 막았다. 그들은 '참' 지식의 폐해와 지식인의 오만을 부각시키는 대신, 실용적 기술의 가치와 기능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때부터 깨달음을 주는 지식, 의식을 깨우쳐서 행동하게 하는 지식,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의 기초가 되는 지식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홀대받기 시작하였다. 합리적 지식에 대한 폄하와 행동하는 지식인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면서, 그 공백을 실용적인 지식 그리고 돈벌이가 되는 지식이 메워갔다. 그리고 한 세대가 흘렀다. 그들 위정자의 약속대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거울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은 아랫배가 튀어나온 영락없는 졸부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위정자들의 주장처럼 지식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닌 수단에 불과한가? 생산성 특히 경제적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지 않은 지식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일까? 다시 말해, 실용적인 지식, 도구적인 지식, 돈이 되는 지식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식이나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지식은 우리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가? 물론, 더불어 사는 공생의 가치보다는 자유경쟁의 가치를 우선시 하는 '신자유주의' 철학이 지배하는 우리의 사회에서,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지식은 개인이나 조직 나아가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요 조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식은 투자의 개념에서 필요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수단이 아니지 않은가? 특히, 물질적인 측면을 뛰어 넘어 정신적인 측면의 삶의 질이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하다면, '상품가치'가 있는 지식보다는 '마음의 양식'이 되는 지식의 습득이 개인이나 조직 나아가 사회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잊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중심적인 개발정책에 더해서 기술결정론적 가치관의 확산은 우리 사회의 지식문화를 더욱 천박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잠시 1990년대 중반이후 우리 사회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정보화'를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되돌아보자. 우리의 위정자들은 정보혁명을 정보매체의 혁명으로 보았고, 정보화의 핵심은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컴퓨터와 통신 장비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정보고속도로라는 통신망을 설치하는데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우리의 PC 보급률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율 그리고 인터넷 가입률은 정보선진국을 오히려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하드웨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가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실상을 파헤쳐 보면, 정보화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근본적인 회의에 빠지게 된다. 정보기기의 대중적 보급이 가져올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소홀히 한 나머지,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 측면에서) 우리의 삶의 질은 오히려 퇴보한 것은 아니던가? 만약 실상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보화였던가?

기술결정론자들이 들으면 시비를 걸어올지도 모르지만, 나는 기술은 문화의 산물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다. 기술에는 그 기술을 개발한 사회의 역사, 철학, 관습, 가치 그리고 규범은 물론이고, 그 사회

를 구성하는 개인의 의식구조와 행태가 배어 있다. 오늘날의 첨단 기술을 대표하는 디지털 기술 또한 마찬가지이다. 디지털 기술의 고향은 컴퓨터를 최초로 만들어내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광케이블과 디스크를 앞서 개발해온 선진정보사회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은 그들이 디지털 기술을 개발해 낸 배경이다. 그들에게는 산업사회에서 상속받은 유산이 너무도 많았고, 선점한 자본주의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넘치는 의욕이 있었다.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선진정보사회의 사회적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리고 그 적용과 확산 또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너무도 급속히 우리 사회에 도입되어 확산되고 있다는데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가 우리의 디지털 기술이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는 매스미디어의 선동적 보도에 마취되어 왔다. 우리는 또한 각종 디지털 기기의 판매를 위해 광분하고 있는 디지털 업체들의 유혹에 경쟁적으로 빠져들어 왔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자"는, 그래서 "21세기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아보자"는 국가적 캐치프레이즈에 너무나도 고무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마치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디지털 기술의 확산을 능히 소화해 낼 정도로 사회적 준비와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착각해 왔다.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디지털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구축하고 유지해온 전통과 가치 그리고 법과 제도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지고 규제와 처벌의 대상이 흐려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부정적 행태는 만연하고 부작용은 커져만 가는데, 사회적 통제력은 미비하고 개인적 판단력은 혼미한 상태에 있다.

나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리 사회에서 생산되고 처리되고 소통되는 정보의 품질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이러한 고급 정보의 양적 누적에 일정 단계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급 정보가 개인이나 사회의 저장소에 누적되어있는 것을 우리는 知識이라고 부른다. 사회구성원들의 머리가 양질의 지식으로 채워져 있을 때,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삶을 위해 긍정적 의미로 다가온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확장된 의사소통의 공간'은 사회 발전의 약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 머리가 비어있다 보니 교환할 정보가 줄어들고, 그릇된 지식으로 채워져 있다보니 저질의 정보가 판을 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과 사회의 지식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보다 디지털이라는 '도구'의 확산에 몰두하고 있다. 디지털이 가져다주는 편의성과 가시성에 중독되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참 知識의 가치를 홀대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5. 너무도 열악한 지식 인프라 : 도서관문화

이처럼 知識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왜곡하고 있는 사회에서, 지식 인프라의 양대 축을 구성하는 교육 시스템과 도서관시스템이 왜곡되고 홀대받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특히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도서관 시스템의 경우, 일반 사회구성원은 물론이고 같은 배를 타고있는 교육계 인력들에게조차 무시당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물론 근자에 들어서, 도서관사람들과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전개하고 있는 여러 시민운동 덕분에,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인식에 어느 정도 변화가 일고 있다. 그

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과 논리 그리고 법과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기에는 아직 조 요원하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도서관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장치'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간혹 서구 사회의 library를 부러워하며 우리 도서관의 열악한 환경을 한탄하는 사람들을 마주친다. 우리의 도서관도 그들의 library와 같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접할 때마다 나의 머리는 절로 숙여진다. 학자의 가면을 방패삼아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너무나도 우직한 그래서 단순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전략과 방안을 접하게 되면 공연히 가슴이 답답해 온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들과 마주칠 때마다, 나는 우리의 도서관과 서구 사회의 library는 결코 동일한 기관이 아님을 애써 강조한다. 외형적인 모습에서 유사할는지 모르지만, 그 역사성과 사회성에 있어 두 기관 사이에는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함을 강조한다. 우리의 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그들을 모방하는데서 찾아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library는 서구 사회의 문화적 산물이다.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시민혁명을 치열하게 경험했던 서구 사회가 만들어낸 투쟁의 산물이다. 근대시민사회의 성립을 주도했던 서구의 선각자들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지식의 대중화'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전제군주체제 하에서 지식의 소유는 신분을 가르는 척도였고,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었다. 지식은 오래 동안 소수에 의해 독점되었고 그들 사이에서만 전수되었다. 시민혁명의 리더들은 소수에 의한 지식의 독점이 가져온 사회적 폐단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던 그들의 선택은 자명하였다. 그들은 '소수의 지식화' 대신에 '지식의 대중화'를 선택하였다. 대중의 깨달음은 시민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기 때문이다.

'지식의 대중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지식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는 것이었다. 더불어, 신분이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지식자원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장치의 하나로써 그들은 library를 고안해 냈다. 마을에는 public library를 설립하고, 직장에는 union library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지식자원의 집적소인 national library도 설립하였다. 이렇듯 서구사회에서 library는 '지식화의 대중화를 통해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 설립되었다. 이렇게 설립된 library가 도시의 중심부에, 그것도 가장 유서 깊은 건물에 들어서서, 지식화를 위한 학습기관이요 문화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떠하였는가?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 진정한 시민사회의 건설을 위한 투쟁의 역사가 있었던가?³⁾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식이 중요함을 앞서 강조한 지도자가 있었던가? 우리에게 소수의 지식화 보다는 지식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

3) 혹자는 반문할지 모른다. 우리에게도 시민사회의 건설을 위한 치열한 투쟁의 역사가 있었고, 그 결과로 우리는 늦게나마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그들의 주장대로 우리에게도 민주화를 위한 치열한 투쟁이 있었고 그 투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민주화 운동에는 서구의 근대화 과정을 지배했던 합리주의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합리성이 결여된 근대화 과정에서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극한 대립이 보편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가지지 못한 자는 '민주화'를 사회정의의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만병통치약처럼 휘두르게 되고,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민주화 요구는 끝없이 이어진다. 이렇듯 합리성을 결여한 민주화 운동은 사회 각 분야에 집단이기주의를 확산시키고 궁극적으로 집단 사이의 극한 대립과 갈등을 조성한다는 데 있다. 나는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있는 사회적 갈등의 대부분이 그 동안 합리적인 지식의 가치를 홀대해온 당연한 결과로 보고 있다.

한 지도자가 있었던가? 우리에게 지식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지식의 집적소요 유통기관인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지도자가 있었던가? 불행하게도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는 시민혁명의 역사가 결여되어 있다. 우리 곁에는 지식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은커녕 지식의 통제와 독점을 통해 권력을 독점해온 지도자들이 오래 동안 남아 있었다. 우리에게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서관 건립을 몸소 실천한 토마스 제퍼슨과 같은 정치가도 앤드류 카네기 같은 사업가도 무척이나 희귀하였다.

이런 사회에서 지식문화의 기초 인프라인 '도서관'은 차라리 사치였다. 사회구성원 사이에 도서관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자발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은 더욱 아니었다. 서구의 근대화를 흉내내는 과정에서 도서관을 설립하긴 하였지만, 처음부터 그 역할과 기능은 서구의 library와 사뭇 달랐다. 우리의 도서관은 행정가들이 설치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마치 '줄부 집안의 치레용 가구'와 같은 존재로 시작하였다. 이는 공공도서관도 대학도서관도 그리고 오늘 논의의 주제인 학교도서관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는 너무도 커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천박한 '근대화' 논리와 '지식의 본질에 대한 왜곡과 폄하'가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한, 나아가, 도서관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도서관이 서구의 library가 되는 날은 요원해 보인다.

6. 지적 건강성의 회복을 위한 출발점 :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정신문화적 중병을 앓고 있다. 이루고자 하는 삶의 가치도, 존경하고 싶은 사회적 대상도 모두 잃어버렸다. 그리곤 너나 할 것 없이 '배부르고 건강한 돼지'가 되고 싶어하는 천민적 욕망에 빠져있다. "이래서는 안되는데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면서도 이미 구조적이 되어 버린 천민 의식과 행태를 그저 맥없이 반복하고 있다. 우리의 왜곡된 지식문화는 이러한 천민 의식과 행태를 구조적이고 만성적으로 만들고 있다. 기성 세대의 병적인 이기주의와 경쟁심리는 아무런 여과 장치없이 고스란히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왜곡된 지식문화를 바로 잡아보려는 노력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잃어버린 지적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움직임은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일부 선각자들의 안타까운 발버둥이 간혹 언론의 조명을 받지만, 곧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만다. 어찌 할 것인가? 어디부터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지적 건강성 회복'을 위한 해법을 잘못된 교육시스템의 개혁에서 찾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을 초중등교육의 본 목적인 인성개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선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교육정책의 주무 부서인 교육부가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모를 리 없다. 가깝게는 '열린 교육과 수요자 중심 교육'을 표방하며 지난 200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멀리는 30여 년 전 시작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평준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참으로 다양한 해법과 처방이 전국의 일선 초중등학교를 실험장으로 삼아 실시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공교육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으며, 급기야 우리의 사교육비 지출은 세계 3위의 위치에 도약(?)해 있다. 교육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빼놓아진 우리의 가치관과 교육관에 있으며, 우리 지식문화의 천박성에 있는 것이다.

나는 잃어버린 우리 사회의 지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기초 공사는 거창한 교육개혁적 실험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우리 각자의 '의식과 감성을 개혁하기 위한 시민운동'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우리의 머리를 감싸고 있는 '思考 필터'와 가슴을 감싸고 있는 '感性 필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두텁게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사고 필터와 감성 필터가 두터워지면, 우리의 천민자본주의적 행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데 자주 인용되는 '냄비 속성'과 '들쥐 근성'은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멀지 않다. 한 권의 책 속에 그 길이 있다. 동몽선습에 그 길이 있고, 죄와 벌에 그 길이 있고, 논어와 맹자 그리고 탈무드에 그 길이 있다. 한 권의 良書가 우리의 왜곡된 의식과 행태 그리고 삶의 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 속에는 그 길이 더욱 농축되어 있다. 그러하기에 고전은 마음의 보약인 것이다. 이처럼 독서는 우리사회의 지적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할 출발점인 것이다.

문제는 독서는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연습을 통해 형성되는 습관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강요나 주입식 교육에 의해 만들어지는 습관이 아니라 자율적 판단과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습관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서구사회의 부러움을 이야기하면서 흔히 인용하는 '도처에서 발견되는 책읽는 모습'은 그들의 유아시절부터 형성된 습관이다. 서구의 부모들이 자식의 침대머리에 앉아 읽어주는 한 권의 책은 서구의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훈련'을 시키는 도구이자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첫 걸음이다. 그러한 부모의 모습은 세 살 아이의 두뇌에 평생의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독서 습관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려면 책을 가려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적 성장 단계에 따라 약이 되는 책과 독이 되는 책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양서를 가려서 읽을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독서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독서습관의 형성은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체계적인 독서교육은 당연히 학교교육을 통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교육은 이러한 당위성을 너무도 철저히 외면해 왔다. 주입식의 획일적인 독서교육은 있었지만, 자율적인 독서습관의 형성과 양서를 선택할 수 있는 해안을 길러주는 체계적인 독서교육은 우리의 학교교육 과정에는 생략되어 있었다. 국어교사는 있었지만 사서교사는 없었고, 독서실은 있었지만 도서관은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는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도서관 현황은 차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다. 그토록 원하던 선진경제국가들의 모임(OECD)에 초대받은 지도 벌써 몇 해가 지났건만, 열악한 학교도서관의 실태는 한 세대 전에 비해 나을 것이 없다. 하드웨어인 시설, 소프트웨어인 장서, 그리고 휴먼웨어인 사서교사 등, 모든 것이 수준 미달이다. 이런 상태에서 어찌 우리 사회의 지적 건강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나는 우리 사회의 지적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은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비록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이번에 마련된 교육부의 '학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은 정말이지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향후 5개년 동안 3천억원의 돈을 투자하여 전국의 6천개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신축 또는 확충한다고 하니, 이제 비로소 우리의 공교육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초 인프라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에 그저 가슴이 뭉클해진다. 사실 그 동안 '기술결정론'에 젖어있는 위정자들과 교육부의 일부 관료들이 교육정보화사업이다 뭐다 해서 몇천억원의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학교도서관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불쌍사납고 안타까웠다. 그 돈의 반에 반만 학교도서관에 투자하였어도 우리의 교육개혁은 물론이고 지식문화의 건강성도 많이 회복되었을 터인데 말이다. 그런데 마침내 오랜 '꿈이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 어찌 반갑지 않으랴!

7.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있어 3대 경영철학

반갑고 좋은 마음에 그리고 이왕에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나선 김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학교도서관 정책 담당자들과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자 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하셨으면 하는 몇 가지 경영철학적인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학교도서관을 '참' 교육 실현을 위한 살아있는 교육환경으로 만들려면, 국가 차원의 법과 제도만큼 기본 경영철학을 명심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도서관은 정보화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정보유통기관임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학교도서관은 정보유통기관이기에 앞서 지식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독서교육의 장이요, 교수와 학습에 필요한 자료의 장이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지적 공감대를 넓히는 문화의 장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노력은 그 무게 중심이 디지털과 정보에 쏠려 있는 듯 보인다. 교육부의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일선 학교에는 이미 디지털 자료실이 설치되고 있으며, 교육현장의 관심도 학교도서관보다는 디지털 자료실로 쏠리고 있는 듯 보인다. 본말이 전도된 안타까운 현상이다. 디지털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디지털'에 대한 우리의 과도한 관심과 투자가 우리의 허약해진 지적 건강성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약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digital)이라는 말은 손가락을 의미하는 라틴어 digitus에서 유래하였다. 디지털 기술은 말 그대로 복잡한 사고력보다는 재빠른 손가락 놀림을 중시한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에 빠져들수록 우리의 사고력은 둔화되고 우리의 행태는 단선적으로 변모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아이들은 이미 디지털에 깊숙이 빠져있다. 인터넷 게임은 물론이고 휴대폰을 이용한 손가락 장난에 너무도 깊숙이 젖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학교도서관마저 디지털 늪에 빠져드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온고지신의 경영철학이 필요하다. 옛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식과 정보의 조화가 필요하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균형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에도 우리의 아이들은 여전히 '생각하며' 살아야 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아날로그의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성장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5년 동안 3천억의 돈을 투자하여 6천개의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일견 너무도 야심차다. 학교마다 평균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도서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발상이다. 우리 나라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1년에 몇백만원에 불과한 자료구입비로 무늬만 도서관인채 근근히 연명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5천만원이라는 돈은 참으로 거금이다. 그러나 이 투자 자금에는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장비 그리고 자료의 구입을 위한 예산이 망라되어 있다. 일견 거금으로 보이지만, 그 동안 방치되어 있어 거의 황폐화되어 버린 우리의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금이다. 게다가 이러한 자금의 투입은 일회성이 될 공산이 크다. 물론 향후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교육부가 마련하겠지만, 소장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만도 학교도서관 당 1년에 몇백만원씩은 필요할 터인데 그러한 거금을 교육부가 어떻게 마련해갈지 은근히 걱정이다.⁴⁾

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의 추진은 현재 교육부정책의 기저인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선진국들에서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온 업적과 성과를 단시일 내에 그것도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내겠다는 무모한 발상은 재고하여야 한다. 우리가 근대화 과정에서 되풀이 해온 시행착오, 즉 '양적 확대와 질적 부실'이라는 반드시 버리고 가야 할 행태가 학교도서관 영역에서 반복될 위험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그 동안 우리 교육부의 각종 정책은 전국의 모든 학교와 학생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로 인한 각종 폐해는 우리가 이미 몸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만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정책 실험에 들어가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그보다는 학교운영자의 의지가 확실하고 교사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일정 수의 학교를 지역별 그리고 유형별로 선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점진적인 정책 집행을 권하고 싶다. 학교도서관의 육성은 끝없는 인내와 노력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도서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組織이라는 사실이다. 전세계의 도서관경영자들은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라는 인도의 저명한 도서관학자 랑가나단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다. 이 말은 도서관은 도서와 장비를 갖춘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사서와 이용자가 지식자원을 매개로 하여 함께 호흡하며 교감을 나누는 살아있는 '조직'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도서관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아니라 경영을 필요로 하는 조직이며, 成長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운영 책임자가 어떠한 자질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成長의 속도와 품질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이다. 운영의 책임자가 열의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때 도서관 운영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된다. 유능한 책임자는 이용자가 외면하는 천 권의 책을 사들여 서가를 장식하기보다는 이용자의 지적 성장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열 권의 책을 선별하여 구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

4) 하긴 사교육비가 세계 3위를 자랑하는 국가에서 부모들의 교육열에 호소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국책사업이 그러했듯이 "정부가 이 만큼 해주었으니 이제부터는 수혜자인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의 발상은 너무도 위험하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우리를 특히 일선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아직은 너무도 열기 때문이다.

문이다.

이 점에서 학교도서관 또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오히려 1인 운영체제가 보편적인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욱 우수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상황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운영 책임자가 되어 '학교운영자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을 연계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하는 사서교사의 확보 방안이 너무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금 '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결정해 놓고도, 그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전문 인력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는 마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첨단 연구시설을 만들어 놓고, 전문 연구원이 아니라 시설 관리인력을 보충하겠다는 발상에 다름없다. 사서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한 일선 학교운영자들에게 일용잡급직이라도 좋으니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면 아무나 배치하여 '시설'을 관리하게끔 하는 묵시적인 지침을 전달하고 있으니, 모처럼의 기대감이 안타까움으로 바뀌고 만다.

물론 교육부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교육부가 어찌 '유능한 사서교사의 배치'가 학교도서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필수 조건임을 모르고 있겠는가? 문제는 계획대로라면 향후 5년 동안에 6천여명의 사서교사를 임용하여 배치하여야 하는데 있다. 그러나 사서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거기다가 사서교사 정원의 증원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의 공감대도 아직은 열은 상태이다. 어쩔 수 없이 '원칙'보다는 '편법'을 선택한 것이리라!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차차 해결해 나가자는 배짱에서 '시설'에 대한 투자를 먼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리라! 그러나 우리의 학교도서관은 서구의 학교도서관처럼 전문적인 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학교도서관은 이제 막 첫 걸음을 떼려 하고 있고, 그러하기에 더욱더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수정 비용이 최초 비용보다 몇 배나 더 투입된 경우를 우리는 너무도 자주 보아오지 않았던가?

그렇다고 해서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전면적으로 채용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사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공 교수이지만, 나는 그 동안 우리가 배출해낸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이제 첫 걸음을 떼어야 하는 우리의 학교도서관을 제대로 구축하고 경영해 나갈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활성화'가 사서교사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자를 비롯한 동료 교사들과의 호흡 맞추기와 학부모들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막중한 업무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업무를 교육경험은 물론이고 도서관경험이 일천한 인력들이 (단지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다른 교과처럼 중견 교사들이 포진하고 있어 그들의 협조와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은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나는 앞서 언급한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다시 제안하고 싶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선은 소수라도 자질을 제대로 갖춘 사서교사를 정식으로 임용하여 일선 학교도서관에 배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학교도서관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하고 싶다. 지금의 '종합방안'에 나타난 잘못된 인력 공급 계획을 무리하게 집행하려 하

기보다는 교육부와 일선 학교운영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우리의 실정에 적합하고 보다 현실적인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의 임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의 기저에는 학교도서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한 전문 인력의 초빙 기준은 사서교사 자격증이 아니라 '사서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이라는 공감대가 반드시 형성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8. 이야기를 마치며

이제 장황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우리의 학교도서관을 뿌리깊은 나무로 만드는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뿌리깊은 나무는 건강하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급변해도 놀라운 생명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다. 사람이 위해를 가하지만 앓는다면,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디 그 뿐이라! 뿌리깊은 나무가 있기에 사람이 망가뜨린 천래의 환경은 자연스레 되살아난다. 그 혜택이 너무도 크기에 뿌리깊은 나무는 아주 오래 동안 가족과 마을의 안녕을 위한 수호신으로 우리 주변에 남아 있었다. 그런 뿌리깊은 나무들이 언제부턴가 기술을 앞세운 '개발' 열풍에 휩싸여 하나 둘씩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뿌리깊은 나무들이 있던 자리엔 넓은 신작로가 깔리고 화려한 시멘트 건물들이 줄줄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몸은 편해졌는데 웬일인지 마음 들 곳이 마땅치 않다. 편리해졌지만 공허해졌고, 풍부해졌지만 궁핍해졌다.

물질중심적 사고와 기술결정론적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까지 찾아오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질은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건강에 의해 좌우됨을 되새겨야 한다.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경제중심주의와 기술중심주의를 경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참된 지식에 대한 이해와 아날로그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우리의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아무리 첨단 정보시대라고 하지만, 학교도서관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지식과 지혜의 고향이요, 지적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뿌리깊은 나무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학교도서관은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 한다. 그 뿌리를 튼튼하게 키우는 1차 역할은 교육 주체들의 몫이다. 도서관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학교도서관을 살리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실천을 보일 때, 반세기 내내 실패로 끝난 우리의 교육개혁은 비로소 성공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